

『제임스조이스저널』

제29권 1호(2023년 6월) 15-40

<http://dx.doi.org/10.46258/jjj.2023.29-1.15>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제임스 조이스 텍스트 연구 동향 분석: 2003~2022년도까지 『제임스 조이스 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이 영 규 · 최 종 갑 *

I. 서론

아일랜드(Ireland) 출신의 작가인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는 20세기 최고의 영미권 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1922년에 프랑스 파리의 서점인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Shakespeare and Company)에서 출간된 『율리시스』(Ulysses)는 출판 즉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모더니즘(modernism)의 대표작으로서 정전(canon)의 위치를 확고히 고수하고 있다.

지난 1998년 미국의 유명 출판사인 모던 라이브러리(Modern Library)에서 20세기에 영어로 쓰여진 최고의 소설들을 선정하면서 『율리시스』를 첫 번째로,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 이영규(제1저자), 최종갑(교신저자)

을 세 번째로 선정하였다.¹⁾ 또한 프랑스의 유력 언론지인 ‘르 몽드’(Le Monde)가 1999년에 뽑은 20세기 최고의 소설에서는 『율리시스』가 28번째로 선정되었다.²⁾ 『율리시스』는 출판된 후 서구에서의 비평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소개되었다. 조이스에 대해 박태원은 1938년에 발표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구보는 그저 『율리시스』를 논하고 있는 벼를 깨닫고, 불쑥, 그야 제임스 조이스의 새로운 시험에는 경의를 표해야 마땅할 게지. 그러나 그것이 새롭다는, 오직 그 점만 가지고 과중 평가를 할 까닭이야 없지”(128)라고 평한 바 있다. 작중 인물 구보가 『율리시스』에 대해 내린 평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이것을 통해 이미 조이스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경성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조이스는 난해한 텍스트의 성격으로 인하여 대중적으로는 쉽게 읽히지 않지만, 비평가들에게는 높은 평가를 받는, 이를테면 작가들의 작가이다. 조이스가 “『율리시스』 속에 너무나 많은 수수께끼와 퀴즈를 감춰뒀기 때문에 앞으로 수 세기 동안 대학교수들은 내가 의미하는 바를 말하느라 분주할 거야. 이게 나의 불멸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지”(Ellmann 521)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제임스 조이스와 동시대인이 되는 것을 배우고 있다”(Ellmann 3).

국내에서도 제임스 조이스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제임스 조이스 관련 연구에 대해 양적, 질적인 면에서 선도하고 있는 학술지는 한국 제임스조이스학회에서 매년 두 차례 발간하는 『제임스 조이스 저널』이라고 하겠다. 이는 한 작가만을 연구하는 학회가 드문 학계의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버지니아 울프 학회>와 함께 작업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영어영문학회> 홈페이지의 관련 사이트³⁾에 소개되어 있는, 단일 작가를 연구하는 학회는 <세익스피어 학회>를

1) <http://www.modernlibrary.com/top-100/100-best-novels/>

2) <https://thegreatestbooks.org/lists/108>

3) <http://www.ellak.or.kr/html/sub15.asp>

비롯하여 <한국버지니아올프학회>, <한국로렌스학회>, <한국에이츠학회>, <한국 헨리 제임스 학회>, <한국 T.S. 엘리엇 학회> 등으로, 학술지를 내는 학회는 드물다. 물론 제임스 조이스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제임스 조이스 저널』이 아닌 타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도 상당하다. 하지만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James Joyce로 검색하여 발표된 논문을 최근 시간순으로 100편을 살펴보았을 때, 43편이 『제임스 조이스 저널』에서 발표되었을 정도로 한국에서 제임스 조이스에 관한 연구를 대표하는 학술지는 『제임스 조이스 저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년간의 제임스 조이스 텍스트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데 있어 해당 텍스트에 대해 가장 많이 다룬 『제임스 조이스 저널』을 그 분석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한편 특정한 주제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볼 때, 키워드를 활용한 분석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키워드는 논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전달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 간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키워드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학술논문의 내용 요약이 가능하고, 논문 이용자들이 하여금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용어로 논문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키워드(노드)를 개체로 하여 이들 간의 연결 관계(링크)를 정의하고 네트워크의 구축을 시각화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자료의 입체적인 탐색과 키워드 간 관계를 빠르게 분석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신유선, 김양희 2006). 결과적으로 이러한 분석 방법을 통해 하나의 키워드 혹은 주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키워드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연구자들이 인지하는 선에서, 현재까지 제임스 조이스 작품에 대한 연구 동향을 키워드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다. 따라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제임스 조이스 작품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량화된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한 분석 방법은 보다 객관적으로 연구 동향을 확인하는 데 용이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제임스 조이스 저널』에 실린 최근 20년간 논문들을 시기별(2003~2012년, 2013~2022년)로 분류 후 각 논문들의 키워드를 분석하여 제임스 조이스 텍스트에 대한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과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20년간 『제임스 조이스 저널』에 실린 논문에 나타난 시기별 키워드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각 시기별 논문에 나타난 고빈도 키워드 간의 연결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제임스 조이스 작품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그간에 제임스 조이스의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 동향에 관한 논문으로는 전수용의 「최근 국외의 조이스 연구동향」, 김상욱의 「포스트모던 조이스-조이스 국외 연구동향」등 두 편이 있다. 이 두 편의 논문들은 영미문학 연구소에서 출간하는 「안과 밖」에 수록되었으며 국외 저서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수용의 논문은 조이스의 연구 동향을 시대별로 발간된 주요 저서들을 정리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1940년대에는 해리 레빈(Harry Levin)의 『제임스 조이스: 비평적 소개서』(*James Joyce: A Critical Introduction*), 1950년대에는 신비평(New Criticism)의 접근방법으로 텍스트 분석을 한 휴 케너(Hugh Kenner)의 『조이스의 목소리들』(*Joyce's Voices*), 1970년대에는 탈구조주의의 성과를 반영한 마고 노리스(Margot Norris)의 『‘피네건의 경야’의 탈중심화된 우주』(*The Decentered Universe of Finnegans Wake*)를 소개한 뒤 1980년대부터는 주제를 세분화해서 서술한다. 예를 들어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시도한 텍스트로는 셸든 브리빅(Sheldon Brivic)의 『프로이트와 융 사이의 조이스』(*Joyce between Freud and Jung*), 쑤제트 헵케(Suzette Henke)의 『제임스 조이스와 욕망의 정치』(*James Joyce and the*

Politics of Desire)를, 정치적인 접근으로는 에드나 더피(Edna Duffy)의 『서벌턴 ‘율리시스’』(*The Subaltern Ulysses*), 빈센트 쉹(Vincent Cheng)의 『조이스, 인종 그리고 제국』(*Joyce, Race and Empire*), 닐 데이비스(Neil Davidson)의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스’, 그리고 유대인적 정체성의 구축』(*James Joyce, ‘Ulysses,’ and the Construction of Jewish Identity*)을, 페미니즘적인 접근으로는 리차드 브라운(Richard Brown)의 『제임스 조이스와 성애』(*James Joyce and Sexuality*)를 소개한다. 1990년대에 종합적인 조이스 비평 선집으로는 레이놀즈(Mary T. Reynolds)가 편집한 『제임스 조이스: 비평 선집』(*James Joyc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등을 소개한다.

전수용이 제임스 조이스에 대한 연구 동향을 시기별로 정리하였다면 김상욱은 문체론적 관점, 역사/문화적 관점, 성(sexuality)과 페미니즘적 관점 등으로 주제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김상욱은 여기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분석하는데, 문체론적 관점은 “문체, 서사, 장르, 텍스트에 관한 연구”(김상욱 224)로, 역사/ 문화적인 관점은 “성, 인종, 계급에 관한 연구”(김상욱 224)로, 성과 페미니즘적 관점은 “성과 성 정치학(sexual politics)을 포함”(김상욱 224)하는 것으로 범주를 나눈다. 김상욱은 전수용과는 다르게 어떤 시기의 특정한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주제에 맞게 특정한 텍스트를 다룬다. 전수용의 동향 분석이 그 시대의 대표적인 지적 흐름과 그에 맞는 비평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면, 김상욱은 본인이 설정한 비평적 시선에 다른 비평가들을 포섭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한다. 가령 서사 연구를 서술할 때 콜린 맥케이브(Colin McCabe)의 『제임스 조이스와 말의 혁명』(*James Joyce & the Revolution of the Word*)의 일부 내용에서 끌어와서 조이스의 “고정이 불가능한 텍스트”(김상욱 225)를 설명하는 식이다. 김상욱의 서술 방식은 주제에 해당되는 텍스트를 요령 있게 요약하여 정리하는 방식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한편 해당 주제에 대한 이론에 대한 해설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두 겹의 읽기가 가능한 연구논문이다.

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은 전체 텍스트에 있는 단어들 간의 관계성 파악을 통해 전체 언어 데이터의 구조를 이해하는 분석 방법이다(박은희 216). 이는 텍스트의 의미적 연관관계를 강조하는 분석 방법으로, 텍스트 분석에서 출현 단어의 빈도만을 고려하여 의미를 찾고자 했던 기존의 전통적인 내용 분석과는 달리, 특정 단어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해당 단어들 사이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이수상 52).

키워드 네트워크를 분석할 때, 키워드 간 관계는 대체로 동시 출현(co-occurrence) 관계로 파악한다. 이는 어떤 대상이 특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주어진 범위(문장이나 텍스트 전체 등)의 언어 텍스트 내에서 키워드들이 동시에 출현하는 것이다. 이수상(53)에 따르면, 키워드의 동시 출현 관계를 판단하는 텍스트의 범위는 주로 문자열(제목, 주제어 리스트 등), 문장, 문단, 소절, 또는 텍스트 전체(논문, 신문 기사, 인터뷰 발언 내용 전체 등) 등으로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다. 동시 출현 키워드들은 해당 범위의 텍스트 내에서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함께 사용되는 것이므로, 주제적으로 유사한 의미라고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둘 이상의 키워드들이 한 문장 안에서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들 키워드들이 해당 문장 내에서 주제적인 측면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동시출현 빈도에 의한 네트워크 관계의 설정은 충분히 타당성을 가진다(강명구 95).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할 경우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관계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때문에, 단어 간 관계에 따른 개별 단어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정량적인 네트워크 지표로 산출할 수 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의 유용성을 살펴보면(박치성, 정지원 80), 첫째, 언어구조를 공간적으로 표시함에 따라 텍스트에 나타난 주요 개념과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여러 중

류의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개념을 찾아냄으로써 전체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단순히 특정 단어가 얼마나 많이 출현하였는지 뿐 아니라 그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나아가 단어들이 특정한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는가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통해 특정 단어들 간의 공동 의미 구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텍스트 전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출현 빈도 분석을 통해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지만 이러한 빈도가 해당 단어가 텍스트 내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반드시 비례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한 단어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단어들 간의 연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할 때, 하나의 키워드가 연결망에서 얼마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중심성(centrality) 분석이다. 중심성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키워드가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수량화하여 키워드의 관계와 영향력을 표현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이운정, 김은정, 김지선 4). 다시 말해, 하나의 단어가 전체 텍스트 내에서 얼마만큼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지를 중심성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측정 지표는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지수이다(신유선, 김양희 211). 먼저, 연결 중심성은 하나의 키워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키워드들과의 연결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연결 중심성이 높을수록 영향력이 큰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근접 중심성은 한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와 얼마나 가깝게 위치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으로 근접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다른 키워드와 쉽게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매개 중심성은 한 키워드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키워드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매개 중심성이 높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내의 정보의 흐름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에서 기존의 게임스 조이스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은 국외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였고, 시기별로 대표적인 비평서들을

소개하거나 또는 주제별로 분류하여 해당 주제에 맞는 논문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키워드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는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 흐름 및 경향을 읽고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데 용이하다(신유선, 김양희, 2006). 현재까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키워드를 대상으로 이들 간의 그러나 국내의 제임스 조이스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아직 전무할 뿐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 문학 텍스트에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식이 아직 영문학 분야에서는 드물다는 점에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제임스 조이스 작품 연구 동향 파악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자료는 『제임스 조이스 저널』에 최근 20년간(2003-2022) 실린 논문으로, 자료 수집은 넷마이너(Netminer 4.4.3)의 확장 프로그램인 비블리오 데이터 콜렉터(Biblio Data Collector)의 상세 수집 기능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20년간 『제임스 조이스 저널』에 출간된 논문을 통해 시기별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검색영역을 KCI(Korea Citation Index)로 설정하고, 논문 자료를 시기별(2003~2012년, 2013~2022년)로 나누어 수집하였다. 넷마이너의 Merge 기능을 이용하여 중복 수집된 논문을 삭제하고, 논문의 제목과 키워드, 그리고 초록 등을 참고하여 연구 목적에 맞지 않는 논문들을 제외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제임스 조이스 저널』 논문은 2003~2012년도에 실린 175편, 2013~2022년도에 실린 108편으로 총 283편이었다.

2. 분석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키워드 네트워크는 특정한 주제 영역의 전체 텍스트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각 키워드 쌍의 동시 출현 빈도 측정 후 이를 바탕으로 키워드 간의 연관도를 계산하여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다시 말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에서 주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를 추출한 후, 이 단어들 간의 연결 관계를 식별하고 시각적 네트워크로 재구조화하여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다(이수상 51). 이러한 분석 방법은 특정 연구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지적구조를 잘 드러내고, 연구동향뿐만 아니라 주요 키워드 간의 관계 구조와 연구의 지향점도 확인할 수 있다(김성묵, 김영준 40).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 절차를 진행하였다. 우선 자료의 기초작업 처리 과정을 완료한 후 시기별로 나누어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분석하고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로 시각화하였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키워드의 연관관계 파악을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결 중심성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 얼마나 직접적으로 많이 연결되어있는지, 즉 키워드 사이의 연결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다음으로 근접 중심성은 하나의 노드와 다른 노드 사이의 거리(distance)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노드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노드들 간의 거리를 계산한 지표이다. 매개 중심성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을 잇는 매개자 역할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다른 노드 간의 최단 경로에 많이 등장할수록 그 중심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중심성 수치를 바탕으로 키워드 간의 위치와 관계를 시각화하기 위해 넷마이너의 스프링(Spring) 맵 방식을 이용하였는데, 이 방식은 지하철 노선도와 같은 방식으로 점과 선의 연결만을 유지함으로써 데이터의 연결방식을 시각화하는 방법을 말한다(박은희, 216). 스프링 방식은 서로 연결된 노드는 가까이

위치시키는 반면 연결되지 않은 노드는 멀리 위치시키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키워드들 간의 연관관계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IV. 연구 결과

1. 키워드 출현 빈도 분석

기간별(2003~2012년, 2013~2022년) 빈도수에 따른 『제임스 조이스 저널』에 있는 논문 키워드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중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25개의 키워드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시기별 고빈도 출현 키워드 분석 결과

순위	2003-2012년도 키워드	빈도수	2013-2022년도 키워드	빈도수
1	Ulysses	176	Ulysses	109
2	life	97	Dubliners	75
3	character	90	character	66
4	language	87	life	64
5	Dubliners	79	Finnegans Wake	61
6	Ireland	72	Bloom	54
7	narrative	65	paralysis	38
8	Dublin	65	time	34
9	Finnegans Wake	64	Stephen	34
10	history	58	Ireland	33
11	Bloom	58	Dublin	33
12	world	57	identity	32
13	woman	54	theme	29
14	Stephen	53	language	29
15	reality	50	epiphany	26
16	identity	49	world	26
17	time	45	word	26
18	word	42	woman	24
19	relationship	41	reality	24

20	image	41	Clay	24
21	style	37	experience	23
22	place	37	home	22
23	interpretation	36	love	21
24	Eveline	35	history	21
25	self	34	desire	21

시기별로 보았을 때, 2003~2012년도 사이의 연구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키워드는 ‘Ulysses’, ‘life’, ‘character’, ‘language’ 순이며, 2013~2022년도에서는 ‘Ulysses’, ‘Dubliners’, ‘character’, ‘life’, ‘Finnegans Wake’ 순이었다. ‘Ulysses’라는 키워드는 지난 20년간 빈도수가 가장 높았으며 키워드로써 ‘Dubliners’와 ‘Finnegans Wake’도 비교적 많은 빈도수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임스 조이스 저널』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텍스트가 『율리시스』이며 그다음으로 많이 분석되는 텍스트가 『더블린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할 만 한 것은 『율리시스』와 함께 모더니즘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분석했을 것으로 유추되는 키워드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이 빈도수 분석 결과 25위 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3~2012년도와 2013~2022년도의 키워드 출현 빈도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Finnegans Wake’라는 키워드가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보다 더 많이 보였다. 이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 『피네간의 경야』보다 적게 연구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더블린 사람들』의 연구가 2003~2012년보다 2013~2022년 사이에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는 단순히 단어의 빈도수뿐만 아니라 키워드에서 보이는 ‘paralysis’와 ‘epiphany’이다. 이 두 개념은 Dubliners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비평적 용어이다. 2003-2012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이 두 단어가 최근 10년에 많이 보인 것은 그만큼 『더블린 사람들』을 분석하면서 좀 더 기본적인 비평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Dubliners’와 함께 단편들의 목록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통해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를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으나 단어들 간의 관계를 알기는 어렵다. 따라서 하나의 단어가 전체 텍스트 내에서 얼마만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혹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중심성(centrality)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심성 분석은 키워드(노드)가 가지고 있는 중요도에 대한 절대적 크기 값보다는 상대적인 순위를 제공해주는 값이며(이수상, 2013),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대표적인 중심성 지표, 즉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의 수치를 분석하였다.

먼저 시기별 단순 출현 빈도 상위 25개 단어에 대한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시기별 키워드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

순위	2003-2012		2013-2022	
	키워드	중심성	키워드	중심성
1	Ulysses	0.500	character	0.417
2	Ireland	0.333	Dubliners	0.333
3	Stephen	0.333	Ulysses	0.333
4	life	0.333	Bloom	0.250
5	Dublin	0.292	life	0.250
6	Dubliners	0.292	paralysis	0.250
7	Finnegans Wake	0.250	time	0.250
8	history	0.250	Stephen	0.208
9	world	0.250	epiphany	0.208
10	character	0.208	reality	0.208
11	language	0.208	theme	0.208
12	narrative	0.208	Clay	0.167
13	relationship	0.208	Dublin	0.167
14	Bloom	0.167	history	0.167
15	Eveline	0.167	love	0.167
16	identity	0.167	woman	0.167
17	image	0.167	word	0.167
18	reality	0.167	Finnegans Wake	0.125
19	self	0.167	experience	0.125
20	woman	0.167	identity	0.125
21	word	0.167	world	0.125

22	place	0.125	Ireland	0.083
23	style	0.125	language	0.083
24	time	0.125	desire	0.042
25	interpretation	0.042	home	0.042

위의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2003~2012년까지 연구에서 가장 높은 연결 중심성을 가진 키워드는 ‘Ulysses’였으며 그다음으로는 바로 ‘Ireland’, ‘Stephen’, ‘life’ 순이었다. 그리고 2013~2022년까지 가장 높게 연결 중심성을 가진 키워드는 ‘character’이며, 그다음으로는 ‘Dubliners’와 ‘Ulysses’, ‘Bloom’ 순이었다.

<표 2>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첫째, 2003~2012년에는 연결 중심성 결과 10번째였던 ‘character’가 2013~2022년에는 가장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이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 2>와 <그림 3>을 보면 앞의 10년에서 ‘character’는 ‘Ulysses’, ‘Dubliners’, ‘Stephen’, ‘Finnegans Wake’, ‘woman’ 등과 연결되어있는데 2013~2022년에는 ‘woman’, ‘language’, ‘Stephen’, ‘Clay’, ‘Bloom’, ‘identity’, ‘experience’, ‘Ulysses’, ‘life’, ‘Dubliners’ 등과 연결되어있다. 즉, 2013~2022년도에 ‘character’라는 키워드가 제임스 조이스의 텍스트에서 보다 다양한 키워드들과 동시 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2003~2012년도에 ‘Stephen’이 4번째, ‘Bloom’이 14번째에 위치해 있는 반면, 2013~2022년에는 ‘Bloom’이 4번째, ‘Stephen’이 8번째로 순서가 바뀌는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셋째, 2003~2012년에는 보이지 않던 ‘paralysis’와 ‘epiphany’가 2013~2022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이며 나타난다. <그림 3>에서 보듯이 ‘paralysis’와 ‘epiphany’는 각각 ‘Dublin’과 ‘Dubliners’와 연결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Ireland’라는 키워드가 앞의 10년에서는 2번째로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여주었지만, 뒤의 10년에서는 22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앞의 10년에서 ‘Ireland’는 ‘history’, ‘language’, ‘reality’, ‘relationship’, ‘world’, ‘identity’, ‘life’ 등과 같은 다양한

다음으로 시기별 단순 출현 빈도 상위 25개 단어에 대한 근접 중심성 분석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시기별 키워드 근접 중심성 분석 결과

순위	2003-2012		2013-2022	
	키워드	중심성	키워드	중심성
1	Ulysses	0.667	character	0.585
2	Ireland	0.600	Ulysses	0.585
3	Stephen	0.585	Dubliners	0.558
4	Dublin	0.571	life	0.545
5	Dubliners	0.545	Bloom	0.522
6	life	0.533	paralysis	0.500
7	narrative	0.533	reality	0.500
8	world	0.533	Stephen	0.480
9	Finnegans Wake	0.511	epiphany	0.480
10	character	0.511	theme	0.480
11	history	0.500	time	0.480
12	language	0.500	woman	0.480
13	Bloom	0.490	love	0.453
14	relationship	0.480	word	0.453
15	identity	0.471	Clay	0.436
16	place	0.471	Dublin	0.436
17	word	0.471	identity	0.429
18	reality	0.462	world	0.429
19	woman	0.462	experience	0.421
20	Eveline	0.453	history	0.421
21	style	0.444	Finnegans Wake	0.414
22	image	0.436	language	0.393
23	self	0.436	home	0.375
24	time	0.414	desire	0.364
25	interpretation	0.407	Ireland	0.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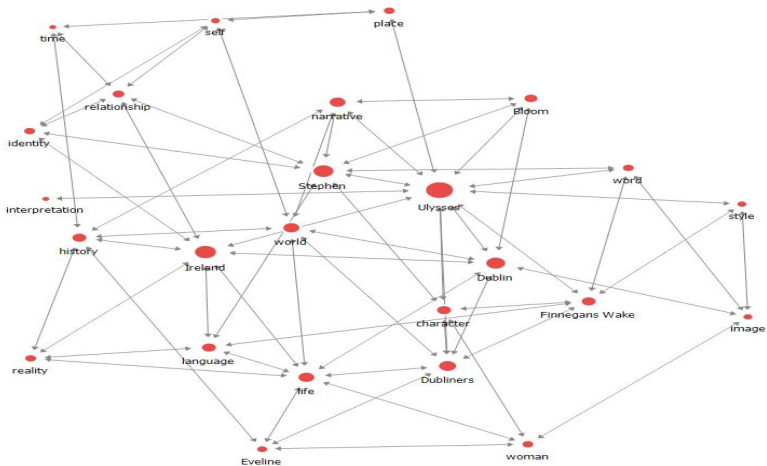
분석 결과, 근접 중심성은 대체로 연결중심성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첫째, 2003~2012년에 근접 중심성 키워드로 7번째 순위였던 ‘narrative’가 2013~2022년에는 보이지 않았다. 아래의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앞의 10년간의 연구에서 ‘narrative’라는 키워드는

‘history’, ‘Stephen’, ‘Bloom’, ‘Ulysses’, ‘world’라는 키워드들과 관련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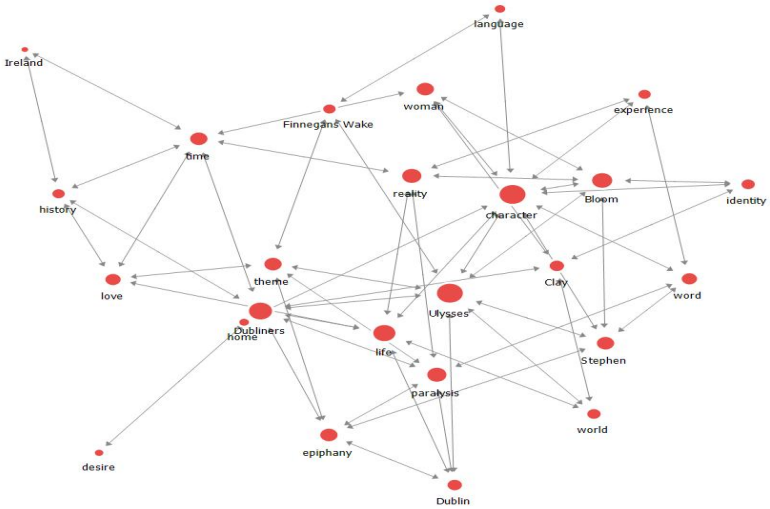
둘째, 2003~2012년에 근접 중심성 결과 14번째에 위치했던 ‘relationship’이라는 키워드가 2013~2022년에는 보이지 않았다. ‘relationship’이라는 키워드는 ‘time’, ‘Ireland’, ‘identity’, ‘Stephen’, ‘self’라는 키워드와 함께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5).

셋째, 2003~2012년에 근접 중심성에서 4번째였던 ‘Dublin’이 2013~2022년에는 16번째로 떨어졌다. 앞의 10년에서 ‘Dublin’이라는 키워드는 ‘Ulysses’, ‘Bloom’, ‘image’, ‘Dubliners’, ‘life’, ‘world’, ‘Ireland’ 등의 다양한 키워드와 연결되었는데 뒤의 10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키워드인 ‘Ulysses’, ‘paralysis’, ‘life’, ‘epiphany’와 동시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래 <그림 4>와 <그림 5>는 시기별 근접 중심성 분석 결과를 스프링 맵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4> 2003~2012년도 키워드의 근접 중심성 스프링 맵



<그림 5> 2013~2022년도 키워드의 근접 중심성 스프링 맵

그리고 시기별 단순 출현 빈도 상위 25개 단어에 대한 매개 중심성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시기별 키워드 매개 중심성 분석 결과

	2003-2012		2013-2022	
순위	키워드	중심성	키워드	중심성
1	Ulysses	0.268	character	0.250
2	Ireland	0.112	Dubliners	0.209
3	Stephen	0.103	Ulysses	0.160
4	life	0.068	time	0.100
5	Dublin	0.066	life	0.100
6	history	0.062	paralyis	0.061
7	Dubliners	0.057	reality	0.060
8	world	0.056	woman	0.054
9	place	0.040	Bloom	0.046
10	character	0.033	theme	0.045
11	Finnegans Wake	0.031	Clay	0.037
12	narrative	0.031	love	0.033

13	relationship	0.030	Stephen	0.028
14	language	0.028	history	0.025
15	woman	0.022	epiphany	0.023
16	image	0.020	word	0.021
17	self	0.018	Finnegans Wake	0.017
18	word	0.018	identity	0.012
19	Eveline	0.017	world	0.011
20	time	0.012	language	0.009
21	identity	0.009	Dublin	0.008
22	style	0.007	experience	0.007
23	reality	0.005	Ireland	0.000
24	Bloom	0.004	desire	0.000
25	interpretation	0.003	home	0.000

매개 중심성 분석 결과, 2003~2012년까지 가장 높은 매개 중심성을 가진 키워드는 ‘Ulysses’, ‘Ireland’, ‘Stephen’, ‘life’ 순이며, 2013~2022년도에는 ‘character’, ‘Dubliners’, Ulysses’, ‘time’ 순이다.

<표 4>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첫째, 2003~2012년에는 20번째였던 ‘time’이 2013~2022년에는 4번째에 위치했다는 것이다. 앞의 10년에서 ‘time’이라는 키워드는 ‘history’, ‘self’, ‘relationship’과 같은 키워드와 연결되어있는데, 뒤의 10년에서는 ‘Ireland’, ‘history’, ‘love’, ‘Dubliners’, reality’, ‘Finnegans Wake’ 등의 키워드들과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연결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2003~2012년에는 2번째였던 ‘Ireland’가 2013~2022년에는 23번째에서 보였다. 앞의 10년에서 ‘Ireland’라는 키워드는 ‘history’, ‘language’, ‘reality’, ‘relationship’, ‘Ulysses’, ‘identity’, ‘life’, ‘Dublin’ 등과 연결되어있는데, 뒤의 10년에서는 ‘history’와 ‘time’이라는 키워드들과만 연결되어있음을 보았을 때(그림 7) 매개 중심성이 확연하게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2003~2012년에 매개 중심성에서 15번째였던 ‘woman’이 2013~2022년에는 8번째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림 6>과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앞의 10년에서 ‘woman’은 ‘life’, ‘Eveline’, ‘image’,

V. 논의 및 결론

이상으로 2003~2012, 2013~2022년 동안 10년 단위로 『제임스 조이스 저널』에 수록된 논문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중심성을 분석했을 때 몇 가지 주목할 점들이 보인다.

먼저, 빈도 분석 결과, 시기별로 보았을 때, 2003~2012년도 연구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키워드는 ‘Ulysses’, ‘life’, ‘character’, ‘language’ 순이며, 2013~2022년도에서는 ‘Ulysses’, ‘Dubliners’, ‘character’, ‘life’, ‘Finnegans Wake’ 순이다. 두 시기 모두 ‘Ulysses’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출현했으며, 지난 20년간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 중 『율리시스』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심성 분석 결과, 시기별로 영향력 있는 키워드가 서로 다르고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2003~2012년에는 ‘Ulysses’, ‘Ireland’, ‘Stephen’이, 2013~2022년에는 ‘character’, ‘Dubliners’, ‘Ulysses’가 3위 안에서 모두 보였다. 흥미롭게도 ‘character’라는 키워드는 두 시기 모두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빈도수를 보여주었으나, 중심성 분석 결과 2003~2012년에는 10위를 그리고 2013~2022년에는 중심성이 1위로 서로 다른 중심성 지수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최근의 10년 동안 ‘character’라는 키워드가 조이스 텍스트에서 영향력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paralysis’와 ‘epiphany’는 2003~2012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2013~2022년에는 두 개의 키워드 모두를 확인할 수 있었다. ‘paralysis’와 ‘epiphany’가 ‘Dubliners’와 연결되어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앞의 1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의 10년에서 『더블린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두 개의 키워드 모두 텍스트로서의 키워드인 ‘Dubliners’뿐 아니라 공간으로서의 ‘Dublin’과도 연결되어있다. 이는 마비의 공간으로서 더블린을 분석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셋째, ‘Ireland’는 2003~2012년 사이의 연구에서는 중심성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두 번째였으나 2013~2022년 사이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현

저하게 낮은 중심성을 보였다. 앞 시기의 연구에서 ‘history’, ‘language’, ‘reality’, ‘relationship’, ‘Ulysses’, ‘identity’, ‘life’, ‘Dublin’ 등의 다양한 키워드와 함께 연결되었던 ‘Ireland’가 뒤의 10년에서는 상대적으로 ‘history’ 및 ‘time’과의 관계에서만 연구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조이스의 텍스트에서 ‘Ireland’가 빈도수에 비하여 최근 10년간의 연구에서는 영향력이 다소 떨어지는 키워드임을 드러낸다.

본 연구를 통해 『제임스 조이스 저널』에서 2003~2012년도와 2013~2022년도의 키워드를 분석하여 본 결과, 제임스 조이스에 대한 연구가 『율리시스』, 『더블린 사람들』, 『피네간의 경야』의 순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최근 20년 동안 조이스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 대한 연구가 눈에 띄게 감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것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주요 캐릭터인 스티븐 디덜러스를 『율리시스』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개별 텍스트로서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 대한 연구가 조이스의 모든 텍스트 중에서 가장 적게 보인다.

한편 15편의 단편 모음집인 『더블린 사람들』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 중에서, 「하숙집」(‘The Boarding House’)의 무니 부인(Mrs. Mooney)이나 「어머니」(‘A Mother’)의 커니 부인(Mrs Kearney)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여성 캐릭터를 다룬 「에블린」과 「진흙」이 많이 주목받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2013~2022년의 최근 10년간의 연구에서는 젊은 여성을 다룬 「에블린」보다는 중년의 여성을 다룬 「진흙」이 더 주목을 받았다. 이것은 더블린을 벗어나는 가능성이랄도 생각해보았던 「에블린」에 비하여 죽음을 상징하는 「진흙」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미 만연한 더블린의 마비 상태와 그 안에서 함몰되어 가는 여성 캐릭터를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분석 방법과는 달리 제임스 조이스의 텍스트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지난 20년 동안의 해당 텍스트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키워드 네트워크를 통한 정량적인 분석은 각각의 텍스트를 해석하면서 제한될 수 있는 실증적인 데

이터를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훨씬 더 많은 논문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유용한 분석 도구로써 활용 가능성을 열어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 분석 시 단어의 단순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는 등장논문 수를 기준으로 한 출현 빈도를 바탕으로 했을 때에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나의 연구에 사용된 주제어를 한 번만 계산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 다른 분석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단순 출현 빈도가 아닌 등장논문 수 기준 출현 빈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제임스 조이스 저널』에 게재된 논문만을 분석하여, 지난 20년 동안의 제임스 조이스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영문학을 다루는 다양한 저널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추후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시기별 연구 동향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세대 · 춘천교대)

인용문헌

- 강명구. 「정치뉴스에 나타난 한국 정치권력구조의 네트워크 분석 — ‘동시출현빈도’의 타당성 검증」. 『언론정보연구』, 37권, 2000, pp. 93-130.
- 김상욱. 「포스트모던 조이스」. 『안과 밖』, 23호, 2007, pp. 220-50.
- 김성묵, 김영준.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리빙랩 연구동향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8권 8호, 2020, pp. 37-48.
- 박은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대학 교양영어 연구주제 분석」.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4권 4호, 2021, pp. 214-39.
- 박치성, 정지원.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사회적 인식 네트워크」. 『정부학연구』, 19권 2호, 2020, pp. 73-108.
- 박태원. 「소설과 구보씨의 일일」. 『박태원 단편선 소설과 구보씨의 일일』, 문학과지성사, 2005.
- 이수상.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1권 4호, 2014, pp. 49-68.
- 이윤정, 김은정, 김지선.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이용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논문의 연구 동향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1권 4호, 2019, pp. 1-18.
- 전수용. 「최근 국외의 조이스 연구동향」. 『안과 밖』, 7호, 1999, pp. 317-33.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2nd ed., Oxford UP, 1982.
- Gifford, Don & Robert J. Seidman. *Ulysses Annotated: Notes for James Joyce's Ulysses*. U of California P, 1988.
- Joyce, James. *Dubliners*. Penguin Books, 2000.
- . *Finnegans Wake*. Viking, 1939.
- .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Penguin, 2003.
- . *Selected Letters*, edited by Richard Ellmann, Faber and Faber, 1975.
- . *Ulysses*, edited by Hans Walter Gabler, Vintage, 1986.

Abstract

Research Trends in James Joyce's Texts from 2003 to 2022: A Keyword Analysis of Published Articles in *James Joyce Journal*

Younggyu Lee · Jong-gab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rends in research on James Joyce's work while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keywords between two periods (2003-2012 and 2013-2022) and relations among the research keywords.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goal, the current study conducted a keyword network analysis of the articles published in *James Joyce Journal* for 20 years.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Biblio data collector, and the English titles, keywords, and abstracts of a total of 283 papers were analyzed using the data-mining software, Netminer4. Then, the data were divided by time period, and the frequency of occurrence of keywords was analyzed and visualized as a word cloud. In addition, in order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keywords, the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and betweenness centrality.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most studied work in the last 20 years is *Ulysses*, followed by *Dubliners* and *Finnegans Wake*. Relatively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Next, unlike the 2003-2012 period, 'paralysis' and 'epiphany', the most critical terms used to describe *Dubliners*, appeared more often in the 2013-2022 period. Moreover, the results of the centrality analysis revealed that in the 2003-2012 period, the words 'Ulysses', 'Ireland', and 'Stephen' were found to play the most central role, and in the 2013-2022 period, the words 'character', 'Dubliners', and 'Ulysses' played the most central role. Interestingly, the word 'character', which appeared in a similarly

high frequency in both periods, showed relatively weak centrality in the former period, but showed the highest centrality in the latter period. Finally, the word ‘Ireland’ was ranked the second highest in centrality between the 2003-2012 period; however, it showed remarkably low centrality in the 2013-2022 perio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unlike the previous analysis method, it examined the research trends of James Joyce’s texts through a keyword network analysis.

■ **Key words** : James Joyce, keyword network analysis, research trends, high frequency words, centrality analysis, James Joyce Journal
 (제임스 조이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연구 동향, 고빈도 어휘, 중심성 분석, 제임스 조이스 저널)

논문접수: 2023년 06월 02일

논문심사: 2023년 06월 02일

게재확정: 2023년 06월 17일